



수기공모 - 장려상

##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쩌면 살아가는 자체가 정리하는 작업인지 모르겠다.  
이점이 유방암을 경험하기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화된 점이다.

**어찌** 다 감기라도 걸려 기침을 하면 주위에서 -특히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간호사도 아프냐며 의아한 눈으로 볼 때가 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조차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병에 대한 특별한 예방책이 있는 낯 아픈 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었다니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던가?

1년 이상씩 젓을 먹여 세 명의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유방에 이상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남편 주위의 아는 분들이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혹시나 하여 내게 검사할 것을 권했다. 일부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유방검사는 그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었다.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2000년 6월경 유방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판독결과는 외과 의사를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외과 과장님이 유방 촉진 후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좋을 것이 없으니 의약분업 사태가 끝난 후 수술하자고 하였다. 한달 넘게 기다려도 의약분업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음은 조급해져서 과장님께 독촉하였다. 그랬더니 정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



유 영 순(가타리나)

성분도병원 수간호사  
nr\_yoo@hanmail.net

술하면서 동시에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였다.

진단 후 두 달이 지난 8월 어느 날 입원을 위해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더니 저희들끼리 무언가를 준비하는 눈치였다. 큰아들이 불쑥 편지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병원에서 읽어보라 하였다. 입원실에서 편지를 펼쳐보니 눈에 익은 글씨들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지금 엄마는 많이 힘드신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엄마, 수술 잘하시고, 힘내세요. 수술 후 건강한 엄마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사랑해요.

-항상 엄마를 사랑하는 막내(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엄마, 저 귀여운 딸 둘째(당시 중학교 3학년)예요. 정말 긴 얘기를 하고 싶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엄마, 제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큰 아들(당시 고등학교 3학년)은 어릴 때 가족 사진과 아이들 세 명이 찍은 사진 뒤에 적었다.

우린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젠 당신을 지켜 드릴게요. 여태껏 당신이 우리를 지켜 주셨듯이...”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세상에 태어나 가지는 많은 의무, 그중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환의를 입은 내 모습이 생소하기만 했으나 입원실에서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일 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이 혼돈스런 상황을 내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저 하느님께 기대어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으니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일들을 만난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닥칠 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지낸다. 어떤 일이 너에게는 일어나고, 나에게는 어찌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는가?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이웃의 아픔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일깨우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했다.

입원 후 이튿날, 막상 수술복을 입고 수술용 침대에 눕자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환자들 불안해 할 때는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참고 수술을 잘 받습니다.” 등으로 쉽게 위로했었다. 그러나 지금 ‘수술’이란 단어를 생각하니 심장의 박동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리고,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환자와 함께 수술실로 갑시다.”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멍한 느낌뿐이었으나 정신을 가다듬으니 벌써 수술실 문 앞이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은 나의 손을 잡으면서 “잘 될 거요.” 했다. 글썽 잘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린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젠 당신을  
지켜 드릴게요.  
여태껏 당신이  
우리를 지켜  
주셨듯이...”

수술이 잘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암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남들에게 아니면 환자들에게 이야기 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충고도 했지만 자신의 문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스크를 한 간호사, 의사선생님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생각되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천사들의 노래 소리처럼 들렸다. 저들이 나를 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뿐이었다. 훗날 남편은 말했다.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거대한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선생님이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 후 조식을 보이면서 “암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단다. 앞이 캄캄하여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으며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였다. 병실은 여름날이다 보니 후텁지근하여 창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스쳐가는 바람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며 숨쉴 수 있어 감사할 뿐이었다. 여태까지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항상 있는 시간이지 한계점이 있는 시간인줄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직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걸어가든, 뛰어가든, 날아가든 하느님께 매달려서 그 분과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뿐이다. 침대에서 보이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였다. 평소에도 가톨릭 병원이다 보니 병원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지만 지금 저 십자가는 너무나 가까이 느껴졌다. 항상 그곳에 있던 십자가가 오늘은 왜 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나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번 뿐이다. 그 한번의 시간이 길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충실하고 값지게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었다. 퇴원하여 집으로 오니 모든 것은 입원 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서로 애쓰는 모습이 여실하여 마음이 짙하였다. 유방주위로 호스 두개를 달고 퇴원하다보니 누워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으려니 답답하여 소파에 비스듬히 앉았다. 베란다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니 힘든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느낌이었다. 조용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았다. 암이라는 알 수 없는 손님이 내게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의심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었다.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는 중에 먹으면 토하고,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얼굴은 까칠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내 모습에 혼자 많이 울었다. 또 항암화학요법 주사를 맞기 위해 피검사를 하는데 그 때마다 죄수가 심판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예정된 주사를 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주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어느 날 미사 참례를 했다. 성당 안을 가득 메운 신자들의 모습이 무척 편안해 보였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났다. 암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내 몸속에 있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까? 남편은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따뜻한 남편의 손을 통하여 마음이 안정되고 주

님의 집에 초대되어 있음을 감사드렸다. 지금은 오직, “주여,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지켜주시며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묵주는 손안에서 땀에 젖어 있었다. “주여,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요즈음,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 각색의 모양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 속에 오늘 하루도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이들이 반갑게 느껴진다. 전에는 별로 재미없던 TV의 코미디도 지금은 일부러라도 소리 내어 웃으며 재미있게 본다. 시간에 쫓겼던 일상생활을 이제는 여유를 가지며 이웃과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한다. 수술하기 전에는 피곤할 경우 지하철, 버스, 소파 등 어디서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 쉬고 나면 피곤이 풀려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스스로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별리기보다 차근차근 정리하는 마음을 갖는다. 어쩌면 살아가는 자체가 정리하는 작업인지 모르겠다. 이점이 유방암을 경험하기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화된 점이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유방암 교실을 만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과 함께 하나라는 느낌으로 운동하고 수다를 떨면서 소리 내어 웃는다. 우리는 너무 외로웠고, 힘들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과정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방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퇴원하여 집으로  
오니 모든 것은  
입원 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서로 애쓰는 모습이  
여실하여 마음이  
짙하였다.